

心身不二의 觀點에서 본 安心·安身論

林 泳 暢*

目 次

I. 序 論	III. 安身론
1. 대순사상 신조로서의 안심·안신	1. 신체의 가치성
2. 심신불이(心身不二)의 觀點에서	2. 안신의 방법
II. 안심론	IV. 신세기에 소요되는 안심·안신
1. 마음이란?	1. 신세기를 맞는 한국인의 위치에서
2.安心的 효용(效用)	2.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인의 기본자세로
3. 안심에의 과정(過程)	V. 結 論

I. 서론(序論)

지나간 20세기를 되돌아볼 때 세계는 불연속선의 기상도 속에서 불확실한 시각으로 세계의 모든 인민, 그 가운데도 더욱이 한국민은 불안과 혼미의 백년을 보내고 겨우 후진성을 면하는가 했더니 다시 IMF체제의 한풍(寒風) 속에 추워 떨고 있는 상태가 되어있다.

역대의 정권마다 개혁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생각대로의 개혁이 용이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근본이 되는 정치와 경제, 문화등 각 분야에 안정이 없기 때문이니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축물과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몸이 또한 불안정한 것이 바로 부실공사

* 前 경남대 교수, 종교학 박사

의 기초가 되어 있고 따라서 국가전체가 안정되지 못했다고 보아서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을 위주하는 종교계는 마음과 정신의 개혁을 강조하고 그 반면 물질을 위주하는 자연과학적 안목으로는 기계문명의 발전에만 힘을 들이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는 정치대로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개혁을 부르짖고 있어도 생각하는대로 쉽사리 진전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 양상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대순 교의의 신조 4강령 가운데 전2강(前二綱)인 안심과 안신론이다. 이것이 근본 핵심으로의 해결책이 되고 새 밀레니엄의 전환기에서 전전하는 역사의 지표(指標)가 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전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안심 안신을 신조로 설정한 종교 위인(偉人) 조정산(趙鼎山) 도주의 탁월한 종교관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고찰을 나름대로 시도하는 바이다.

1. 대순사상 신조로서의 안심 · 안신

대순진리회에서는 종교의 교의로 종지(宗旨) 4개강(綱)을 설정하여 합덕 · 조화 · 상생 · 진경으로 하여 있고 그 후속으로 신조(信條) 4개강령과 3개 요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 신조의 강령은 ‘안심 · 안신 · 경천 · 수도’ 네가지며 요체는 ‘성(誠) · 경(敬) · 신(信)’의 세가지다. 이번 본고에서는 강령의 1,2강인 안심 · 안신을 고찰하여 도인들 신행의 규범을 밝히는 동시에 모든 인간의 이에 따른 확고한 신념을 깨우치려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얼마나의 공효가 있으며 국민이 모두 그러하면 바로 글자 그대로의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실을 거둘 것이고 세계가 모두 그렇다고 하면 5만년 평화세계가 지구 위에 건설될 것임을 넉넉히 말할 수가 있다.

먼저 우리는 여기 저기서의 의견을 종합 고구하기에 앞서 요람(要覽)에서 설하고 있는 취의(趣意)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심(安心)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
이 진실하고 순결한 양심으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않고 당치
않은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않고 기대하는 바 목적을 달성하도
록 항상 마음을 안전하게 한다.1)

안신(安身)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하
게 하여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
동하지 말아야 한다.2)

이 안심과 안신에 대한 논의는 본론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본
문만 소개한다. 간단히 대의를 요약하면 ‘안심은 인간의 행동을 주관하는 바
진실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유혹과 또 허욕에 팔리지 않고 목적달성을 위
해 안전하여야 한다.’

‘안신은 마음을 표현하는 바 법례와 도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
이 된다.

그러나 이 요람의 설명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구천상제 곧 증산의 현무경
(玄武經) 가운데 있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보고 있으니 이 성의(聖意)에 입
각한 도주 정산이 신조의 제1강으로 설정하지 않고는 안되었으리라고 추측
할 수 있다.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 安身
小病之藥 四物湯 八十貼

이렇게 천하의 큰 병을 고치는 데는 안심과 안신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증산의 금도(襟度)와 배포(排布)의 넓고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상고시대 중국의 요(堯)임금의 ‘심법(心法)’으로 ‘安安’이란 말이 ‘성명규지
(性命圭旨)’ 좌선도(坐禪圖)에 나오는데 ‘안안(安安)’이라고 한 것이 그저 ‘평
안하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순사상적으로는 안심, 안신의 뜻으

1) 대순진리회 요람 7.신조, p.14, 교무부 발행

2) 대순진리회 요람 7.신조, p.14, 교무부 발행

로 풀이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2. 심신불이(心身不二)의 관점에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음과 양이듯 소우주인 인간의 구성도 역시 음과 양이다. 이 음양의 원리란 음과 양이 음은 음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음양을 나눠서 보는 것은 하나의 실체를 두고 보는 이론상의 양분법(兩分法)적인 논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대순사상이 교시하는 인간이 곧 신이요, 신은 인간 사후의 생을 의미하는 교의와 상충(相沖)되는 것은 아니니 살아있는 인간의 내재(內在)한 신격(神格)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격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인격으로서의 인간만을 논하여 몸과 마음을 갈라서 말하면 양립(兩立)이 될 뿐이라는 것도 말할 수 있다.

아무튼 몸과 마음 그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 두 바퀴의 크기가 같고 튼튼하기가 같고 구르는 힘이 같아야만 수레와 수레에 실은 물건이 균형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몰라서인지 알고도 옳게 다루지를 못해서 인지 인간이 전인적(全人的)으로 살지않고 먹고 입고 놀고 뛰고 엔조이하는 육체일변도로 사는 군상(群像)이 있다. 또 그 반면에 한쪽은 정신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에만 빠지다가 미신(迷神) 미신(迷信)에 홀리어 몸은 못살아도 좋다 굶어도 헐벗어도 좋다고 하여 찬송을 하고 주문과 염불만 외워대는 인간들이 과다(頗多)하다.

이 가운데는 인간이 인간다운 값어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주의 사상과 수령이나 교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 사교(邪教) 또는 사도(邪道)로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대비한 불교의 고사(古事)가 있어서 선가(禪家)에 회자(膾炙)되는 계(偈 - 시와 같은 것인데 가타[*gātā*]라고 한다)가 육조단경(六祖壇經)³⁾ 책에 나와 있다. 선종(禪宗)의 혜능(慧能)과 신수(神秀)가 몸과 마음 그리고

3) 육조단경 : 六祖大師 法寶壇經, 元나라 宗寶저, 六祖의 語要集

그 닦고[修] 기르는 것[養]을 읊은 것인데 참고가 된다.

5조(五祖) 흥인(弘忍)에게서 깨달음을 나타내는 게(偈)를 지으라는 명을 받고 수좌(首座)인 신수(神秀)가 ‘몸은 보리수/마음은 명경대/부지런히 쓸고 닦아서/티끌 먼지 못 끼게 하라(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埃)’고 했는데 사승(師僧)인 신수대사가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잡역승(雜役僧)이던 혜능(慧能)이 그날 밤 벽에 써붙인 게(偈)가 있었는데 신수가 보고서 법통(法統)을 전수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글이 다음과 같다.

‘보리수도 나무 아니고/명경대도 대(臺)가 아닐세/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티끌 먼지 낄 것 없지(菩提無本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⁴⁾

신수가 말한 몸이 보리(깨달음)의 본체고 마음은 사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비유도 좋지마는 거기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수행의 뜻이 됨직하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공(空)사상으로 보면 그 근본은 무아(無我=주체가 없는 것)일 뿐이니 본체가 없는 판에 티끌도 어디 있을 수도 없고 없으니 끼일 수도 없다는 고차원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공(空)사상을 배우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심신일여(心身一如)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도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마치 옛 로마인들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유심론(唯心論)의 심(心)이 몸을 무시하란 뜻이 아니고 심신불이의 뜻으로 정신의 중심 육체의 중심이 되는 심(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심신 곧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봐야 할 것은 여기 대한 주관이 반듯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하나의 완전한 인격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치관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인도에 있던 브라흐만(brahman=婆羅門)같은 종교사상의 경우다. 4종성(四種姓)으로 태어나는 출생부터가 전세의 업(業=karma)의 보응이기 때문에 그에 순복하고 살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은 괴로움뿐이니 하

4) 身是菩提樹·菩提本無樹：六祖壇經에 있음

루라도 빨리 죽어서 좋은 복락을 누리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원시적 교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세계 종교화할 수 있었겠는가. 비로소 자이나(jaina=耨那)⁵⁾·샤카(sākya=釋迦)같은 이의 새로운 교설이 있음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봐도 알 것이다.

또 그 반대로 일본의 경우다. 그들은 한국서 유교가 건너가고 불교가 건너간 후에 정신문명의 세계로 약간씩 발전해간 것이지 그 전에는 육체적인 현실 이외의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아시카가(足利) 막부(幕府)때 국민의 가가호호(家家戶戶)에 강제적으로 1사1사(一社一寺) 곧 하나의 신사와 하나의 사찰에 소속되게 하는 종교정책을 써서 국민들에게 강제적인 종교생활을 권장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인도의 경우가 내세(來世)지향의 인생관을 갖게 된 것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충군(忠君 : 이때의 충군은 지방의 족장 번주(藩主)가 대상이다) 애국을 위해서 목숨을 투척(投擲)하는 지금의 북한 김정일 정권과 같은 현실적 전체주의가 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전자 인도의 경우는 너무 현실을 무시하는 정신만의 세계가 되고 후자 일본의 경우는 정신을 전체주의로 마비시킨 현실의 육체적으로만 전개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분리한 종교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는 일변도(一邊倒)란 글자 그대로 한 끝에서 꺼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때문에 본론을 심신불이의 관점에서 안심과 안신을 논의하려고 하는 핵심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일체유심조(一切惟心造)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조작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몸의 기능이 마음 못지않다. 못하느니 하는 우열(優劣)을 가릴 것 없이 같은 값어치를 지니고 같이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몸이 곧 마음이며 마음이 곧 몸으로, 한사람의 인간의 사고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한가지 작용의 근본인 것이다.

심·신의 상관관계, 그 심신불이의 관점에서라야만 음양합덕이나 신인조화 같은 종지도 해석될 것이다.

5) 자이나 : 석가모니보다 60년전 인도에 나타난 자이나(耨那)교의 교주

II. 안심론(安心論)

그러면 이제 신조의 첫째 강령인 안심에 대한 논의를 펴려는 바 안심이라면 모두가 함다반하게 하루에도 몇번씩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않다.

그러나 도주께서는 이 쉬운 말의 안심을 신조의 첫머리에 두었으니 진리는 어려운데 있지않고 쉽게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

“간밤에 몸이 찌긋찌긋하기에 감기몸살인가 했더니. 자고 나서 거뜬해서 안심했다”

“그리 많지 않은 빛이지만 빛을 갓고 나니 가계가 안심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안심은 모두 현실의 건강이나 경제문제로서 오는 것이지만 이런 현실적이 아닌 차원 높은 안심의 경우가 있다.

“108번뇌와 망상이 이제 사라지는 듯 정신의 대자유와 안심을 느낀다” 하는 것은 수도자가 정신상태를 고백하는 언사일 것이다.

또 이 안심이란 말은 일개인의 사소한 일보다도 한사회 한국가 국민이 함께 느끼기도 하는 것이니 1997년 11월 하순에 한국의 경제가 국제적인 채권자 IMF(국제통화기금)의 통제하에 들어간 국난(國難)의 경우 정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하여 1년만에 겨우 일단 안심해도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안위(安危)가 연계되어 있던 난국(難局)이었기 때문에 안심안도의 값어치도 큰 것이다.

마음의 평안 [편안(便安)과 평안(平安)은 자의(字義)로서 또 지금까지의 관습으로 차이가 있다] 6) 곧 안심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중요한 교의 또는 교훈이 되는 것이니 안심이란 그 마음을 안정하게 하여 평안하게 하는 종교상 필수적 공부방법이며 또 목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순사상의 신조로 설정한 것인데 더 나아가서는 도인·비도인을 막론하고 전인류의 생활신조라

6) 平安 : 無事太平의 뜻, 便安 : 便利, 便宜의 뜻, 훈민정음 서문에 ‘날로 쓸에(日用) 편안케 한다’

고 할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1. 마음(心)이란?

안심, 곧 마음을 안정케한다는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추구해 보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고전(古篆)의 마음 心자는 다음과 같이 ♡ 인간의 염통 곧 심장 모양을 취해있다. 그리고 그 뜻도 심장이 되는 것이니 영어의 하트(heart)가 바로 그것이고 마음드(mind)라고 할 마음(정신이니 생각이니 영어의 spirit) 같은 관념은 역사가 진전하면서 혼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염락(濂洛)⁷⁾에 보면 소강절(邵康節)이 지은 이런 시가 있다.

月倒天心處 (달은 하늘 북판에 걸리고)
風來水面時 (바람이 수면을 스쳐 올 때)
一般清意味 (우주 전체의 맑은 뜻을)
料得少人知 (이해해서 아는 이가 적구나)

이 시에서 보듯이 천심(天心)이 하늘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 북판이 되어 하늘의 중앙 곧 심장부를 의미하고 있다.

불교의 정수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다심경’이란 경전이 있다. 산스크리트로는 프라즈나 파라알타 흐르다야 슈트라(prajna paramitta hrdaya sutra)라고 하는데 흐르다야(hrdaya) 곧 심장이란 말을 心으로 하여 심경(心經)이라고 약칭을 한다.

이때의 심경의 뜻이 ‘마음의 글’이라는 뜻이 아니고 ‘핵심되는 글’이라고 한다는 것은 불교신자면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것을 가장 극명(克明)히 표현한 것이 구천상제인 도조 증산이 현무경(玄武經)에서 교시하신 그대로니 동서 종교의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은 교설(敎說)은 없기 때문에 이 법언(法言)은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

天地之中央 心也 故 東西南北身 依於心(천지의 중앙이 마음이다. 그러고

7) 濂洛 : 宋代의 주염계가 있던 염계와 程이천형제가 있던 洛陽을 합친 말인데 合作 시집을 내어서 염락이라 하였음

로 동·서·남·북의 몸이 마음을 의지하느니라)⁸⁾

우주천지의 복판, (하늘 복판인 天心보다도 차원이 더 높아진다) 그것은 곧 마음이라고 할 것이니 천·지·인 3극(三極)이 모두 마음에 의해서 생성 존립한다고도 볼 수 있는 바, 여기서 심·신의 관계를 들어서 4방(四方)인 동서남북을 몸으로 보면 그 넷 몸이 중앙, 중심인 마음에 의해서 생성 유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저 이것은 하나의 부도(符圖)와 참서(讖書)로 조직되어 있는 현무경 가운데 단장(短章)의 문구로 나와 있어서 그 해설적인 것에 감히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성격의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마음을 우주의중앙으로 본 관점이 실로 웅대하며 4방을 지체로 보아서 중앙인 마음에 종속시킨 뜻이 사람들의 뜻밖의 일이라 생각할 따름이다.

여기서 일단 몇 개 종교 교의 가운데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교의 경우, 유교 그 자체가 종교적인 요소는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종교는 아니었다.

유교에서는 천지 우주의 도(道)를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부수된 교의 그리고 행동의 강령을 펴 나갔다. 그것이 역경(易經) 계사(繫辭)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보고 있다.

一陰一陽謂之道(한 음과 한 양을 도라고 이른다)⁹⁾

우주 만물 인간 만사가 음과 양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음과 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우주요 인간이기 때문이다.

마음과 몸도 이의 한 보기가 되는 것은 마음이란 음의 작용과 몸이란 양의 작용, 이 두가지의 결합이 있어야만 인간이 구성될 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의 아성(亞聖)으로 불리우는 맹자(孟子)는 이렇게 마음을 규정하고 있다.

8) 강증산 지은 玄武經 제3면

9) 주역 계사 상권 5장

形之君而 神明之主(형상의 임금이요 신명의 주인이다)¹⁰⁾

형상 있는 것의 임금이란 말이 대순의 요람(要覽)에서 설하는 바와 다름 없이니 ‘사람의 행동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다’하는 말과 이명동곡(異名同曲)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인간에게 내재(內在)한 신명의 주인으로 그 신명까지도 마음의 작용으로 움직인다는 탁월한 가르침을 들고 싶다. 이것은 물론 나라는 일개인 뿐 아니라 천·지·인 3계에 총일한 모든 신명들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니 마음 그 하나가 우주의 주인이 된다고 확대해석도 용이한 것이다.

기독교의 교의에서 마음에 대한 것을 찾아본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오¹¹⁾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하늘을 볼 것임이니라¹²⁾

기독교의 산상수훈(山上垂訓) 8복(八福) 가운데 있는 마음 다스리는 것 두가지를 골랐다. 앞의 구절은 천국을 지닐 수 있는 것이 마음인 것을, 뒤의 구절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마음인 것을 가르쳤다. 그만큼 마음의 작용으로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하늘을 친견(親見)하게 된다는 것이니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또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네 마음에 있다’¹³⁾고도 하여 마음이 곧 천국인 교훈도 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에는 더 고차원적으로 하고 있으니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惟心造(만일 사람이 3세의 모든 부처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으면 법계(진리의 세계)의 본성을 꿰어보아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造作)인 것을...)¹⁴⁾

말하자면 모든 부처란 것도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 그래서 불교를 유심론(惟心論)의 종교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 아무튼 부처까지도 모두

10) 맹자 告子 上
11) 신약성서 마태복음 5:3
12) 동서 동 5:8
13) 신약성서 누가복음 18:16
14) 大方?佛 華嚴經 3

마음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는 대설법(大說法)이니 마음을 말하는 데 빼어놓을 수 없는 고차원적 발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족종교인 천도교의 경우 수운(水雲)이 가르치는 법설(法說=불교와는 반대로 설법이 아닌 법설이라고 한다)을 살펴본다.

내 (한울님)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 사람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천지는 안다해도 귀신은 알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라는 것도 나(한울님)니라 (吾心卽汝心也 人何如之 知天地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¹⁵⁾

여기서 수운은 하늘의 마음이 곧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과 신명을 알지 못하였지만 알고 보면 수운 자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신명인 한울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므로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면 [人乃天] 이라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란 것이 우주의 근본이 되며 모든 것의 임금이 되고 부처를 만들기도 하고 신명이 되기도 하는 우주보다도 더 큰 존재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서기 5세기에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프로그로스(Prognos)의 ‘형이상학(形而上學)¹⁶⁾’이란 철학서에 마음에 대한 일련(一連)의 논의가 있는 바 이것이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소개해 두려한다.

프로그로스는 신플라톤 학파와 아테네 학파에 속해 있으면서 교수생활을 했는데 ‘계승자 프로그로스’라고 호칭하리만큼 희랍철학사를 장식한 최후의 철학자인데 그는 체험으로서 보다도 예리한 예지(叡智)의 논리를 연역적(演繹的)으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서기 410년에 출생하여 485년까지 75세를 1기로 일생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신학(神學), 철학(哲學), 수학, 천문학 등의 수많은 저서와 주석서가 있었는데 그 책들이 지금도 거의 다 전하지만 자기 독창적인 것이 없는 주석학이 주종이 되어 후세에 그렇게 횡전(喧傳)되지 못한 것 같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은 일제시대 전시(戰時)때 출판된 일문역이다.

15) 東京大全 논학문

16) 프로그로스 저 形而上學 1944년 일본 生活社

184 : 모든 마음은 신적(神的) 마음이거나 예지에서 무지로 변화하는 마음이거나 더러는 이 중간에 있어서 항상 예지보다 떨어지는 마음이거나 한 그 어느 것이다.

185 : 모든 신적(神的)인 마음은 마음의 단계에서 곧 신(神)이며 이성적인 예지를 지닌 마음은 신적인 마음을 따르는 마음이며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은 어떤 때만 신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다.

187 : 모든 마음은 불괴불멸(不壞不滅)한다.

188 : 모든 마음은 생명이며 살아있는 것이다.

189 : 모든 마음은 그 자신으로서 살아있는 것이다.

191 : 모든 분유(分有)된 마음이 있는 실체(實體)는 영원적이지만 그 활동은 일시적이다.

195 : 모든 마음은 예지에서 직접 유래한다.

196 : 모든 분유(分有)된 마음은 불생불멸(不生不滅)의 본체를 지닌 제1차적인 영속적(永續的) 신체(身體)를 사용한다.

206 : 모든 특수한 마음은 생성의 세계에 하강(下降)하고 또 생성의 세계에서 천상의 세계에 상승(上昇)할 수 있으며 그 과정(過程)은 무한하다.

제1장 '1과 다(一과 多)에서 시작하여 제14장 마음(心)의 부문 30여개 항목에서 몇구절 발췌한 것인데 이 원서에는 '그 이유'라고 해서 위의 명제에 하나 하나 해설을 붙이고 있다. 그것이 참고되는 것이 주론(主論)이지만 그 내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했다.

그래서 이 선(禪)의 화두(話頭)같은 말들이 난해(難解)한 것 같아서 간단한 요약(要約)을 붙인다.

먼저 우주삼라만상을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그 구성의 원인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 계	원 인
자 연	최고의 1
우 주	최고의 존재(存在)
생 명	최고의 생명
예 지	최고의 지혜
마 음	분별지(分別智)
동 물	최저의 지혜
식 물	최저의 생명
무생물	최저의 존재
질료(質料)	최저의 1자(一者)

이 가운데 마음(心)이 첫째 신적(神的)인 마음, 둘째 최고의 지혜인 예지에서 최저의 지혜로 변화한 마음, 셋째 이 중간에 있어서 항상 지혜는 있으나 그것이 신적(神的)인 마음보다 하급(下級)인 마음인가 하는 것으로 갈라진다는 184항이 주명제가 되어 거기서 연역(演繹)되어 가는 것이다.

2. 안심의 효용(效用)

요람이 보이는 대순진리회의 해설을 먼저 살펴본다. 마음이 안정한 효용이라고 해도 좋고 그저 작용이라고 해도 좋은 결과를 보면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목표	마음- 인간의 행동기능 주관	실천
기대하는 목적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벽성이 없이 · 사사(私邪)됨이 없이 · 진실하게 · 순결하게 · 헛된 유혹에 움직임 없이 · 부당한 허욕에 팔리지 않게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심의 목표를 스스로 기대하는 바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안심의 목적 또는 공효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현실적인 정신적인 갖가지의 목적이 있을 것 같지만 대순 도인들의 공통된 지고지상(至高至上)의 목적은 종지(宗旨)에서 규정한 종교의 오의(奧義)로서 이를 수 있는 도통진경(道通眞境) 바로 그것 밖에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도인 모두의 공통된 목적인 동시에 대순진리회가 믿고 있는 교의의 목적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신행(信行)하는 제1조로서 안심(安心)이란 하나의 쉽다면 쉽지만 고차원적으로 보면 종교 그 자체의 성과적 결정(結晶)이 이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안심이라는 목적의 각론도 되고 또 방법론도 되는 것을 쌍쌍이 설명한 것도 하나의 좋은 규범이 되는 것이니 1. 마음에 편벽성과 사사(私邪)됨의 배제 2. 진실하고 순결하게 3. 유혹에 움직임 없이, 허욕에 팔리잖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켜 안전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단계적 수행이 오늘의 부허 방황하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강목(綱目)이 된다 할 것이다.

마음을 안정한다는 것은 종교마다 수행의 초보로 또 수행의 극치로 삼고 있어서 가위 종교 그 자체의 목적 같기도 느낄 수 있지만 대순사상이 4개강(四個綱)의 종지 다음에 신조라고 설정한 것은 신행(信行)의 조목들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타당성을 지녔다 할 것이다.

유교에서의 경우 안심을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해본다. 유교에서는 인심(人心)과 인격의 극치(極致)를 안심입명(安心立命)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다. 이 말이 중국에서 수도하는 이의 목표가 되어 있었던 관계인지 불교 또한 산스크리트 경전에는 없는 안심입명이란 말을 불교교의에 상용하는 경향이 있으리만큼 되어 있다. 이의 출처는 맹자(孟子) 진심장구(盡心章句)상의 처음에 나오는 다음 말이다.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養其性 所以事天也. 夭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극진히 하는 사람은 성품 [性] 을 안다. 성(性)을 알면 하늘을 안다. 마음을 보존하여 성(性)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까닭이다. 일찍 죽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몸을 닦아 기다리는 것은 천명을 지키는 [立] 까닭이

다.17)

여기서 우리는 맹자가 또한 마음 [心] 과 성품 [性] 관계, 그리고 하늘 [天] 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풀어 가르치는 것을 보고 있다.

이의 종속관계가 현대인에게는 좀 못마땅하지만 당시의 사상적 계통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에서 다시금 배우는 바가 있다. 그것은 하늘 [天] 이 3계의 최고위에 있으며 그 하늘을 아는 것이 성(性)이며 그 성을 아는 것이 마음 [心] 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존심양성(存心養性)하는 것이 사천(事=하늘을 섬김)하는 까닭이라고 규정하여 존심입명(存心立命) 곧 안심입명(安心立命)이란 하나의 뚜렷한 관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후에 이것을 인용(仍用)하는 불교에서도 붓다타(budhatha=佛性)란 말을 불심(佛心)으로 쓰기도 하여 심(心)과 성(性)을 거의 동의어(同義語)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마음(心)과 성품(性)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으니 이때의 안심입명과 불교에서의 도를 이루는 [成道] 것, 곧 성불(成佛)하는 것과는 개념을 달리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현세적인 윤리도덕의 유교나 불교처럼 체계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이 환자들의 병을 고칠 때 한말들 가운데 마음에 신뢰감을 주기위한 감탄형의 언사로 사용된 것이 많이 있다.

소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18)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19)

이런 유의 안심이란 말이 많이 쓰였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을 위한 안심의 말씀도 많이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20)

그밖에 우리나라의 민족종교 가운데도 마음을 안정하는 것을 말하지 않은 종교가 없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정신을 가다듬고 통일을 하도록 하는 종교

17) 孟子 진심장구 上

18) 마태복음 9:2

19) 동서 9:22

20) 요한복음 14:1

이외에도 선(禪)이니 기(氣)니 요가니 하는 정신훈련의 기관과 도장들도 허다하다.

그밖에도 최면술이니 정신통일이니 하는 과학에 입각한 방법도 있지만 대순사상에서처럼 ‘기대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목표, 그것이 육체의 치병이나 건강술, 또는 기억력, 집중력의 성격교정등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저 ‘빛을 झा아서 안심했다. 감기가 나아서 안심했다’하는 정도가 아닌 진정한 종교적 안심을 체득하여야만 하는 것을 교시하고 있다.

3. 안심에의 과정(過程)

그러면 이러한 종교적 안심에 이르는 과정(過程)을 어떻게 설정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논의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유교의 과거 성현들이 안심에 대해서 유의하고 중시했다면 또 오늘의 관념과 같은 마음을 인간의 본질로 간주(看做)했다면 과거에 성리(性理)라는 말대신 심리(心理)라고 사용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동양의 종교는 보자기와 같아서 온갖 종교를 함께 포섭하고 융화시키는 것이 여물게 만들어 놓은 서양의 가방과는 생김생김부터 용도가 다르다고 했다.

그런 눈에서 보면 심(心)과 성(性)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대립화할 성질의 것은 아니니 공자 맹자의 유도사상이 북송(北宋)의 주돈이(周敦頤)에게서 입론(立論)되어 정씨형제(程伊川, 程明道)와 주희암(朱晦庵)에게서 성립한 정주학(程朱學)을 성리학(性理學)으로 지금까지 부르는 것이 만일 마음이 성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인식했다면 성리학이 아닌 심리학(心理學)이라는 명칭을 먼저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위의 절(節)에서 소개한 바도 있지만은 각종교마다 도의 완성, 인격의 완성인 안심입명을 위한 신행(信行)의 과정은 각각 상이하다. 그러나 그 목적하는 바의 내용과 이상은 상통한 것이 없지 않다.

먼저 유교의 경우 대학(大學)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에 대한다.

所謂 修身在正其心者…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 不得其正 心不

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此謂修身在正其心(소위 몸을 닦는 것이 마음 바로하는데 있다. 즐거운 것이 있어도 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마음은 없다. 보아서 보지않고 들어서 듣지않고 먹어서 그맛을 모르는 것 이것을 수신(修身)이 정심(正心)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²¹⁾

몸(身)과 마음(心)의 관계와 함께 몸을 닦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실은 이것을 다음 안신론(安身論)에 예문으로 할 것이지만 여기에 주(主)가 되는 것이 마음이며 또 본고의 주제가 삼신불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성불의 단계를 각 경전에 조직적으로 소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심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차치하고 밀교 [금강승(金剛乘)]²²⁾ 경전에서 160가지를 우주의 사물에 비추어 가르쳐서 수행에 적용시킨 것이 있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각급의 대표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본다.

- 1류 : 천심(天心) 인심(人心) 아수라심 아귀심 등
- 2류 : 탐심(貪心) 진심(嗔心) 치심(癡心) 자심(慈心) 지심(智心) 등
- 3류 : 풍심(風心) 수심(水心) 화심(火心) 이심(泥心) 등
- 4류 : 사자심(獅子心) 이심(狸心) 구심(拘心) 서심(?心) 등
- 5류 : 전심(田心) 염심(塩心) 하해등심(河海等心) 혈등심(穴等心) 수생심(受生心) 등²³⁾

이런 것을 다 거치라는 것은 아니고 이 가운데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흉내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과거의 안심방법을 그대로 습답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각종교를 두루 살피고 또 일반적인 시대성을 참작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과정을 설정해 본다.

(1) 맑은 마음(淸淨心) (2) 바른 마음(正直心) (3) 사랑의 마음(慈愛心) (4) 화합하는 마음(和合心)을 들고 싶다. 이 네가지의 마음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지니면 최대의 안심을 얻을 것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

21) 대학 傳之七章

22) 불교가 원시불교에서 小乘·大乘으로 나뉘진 후에 다시 생겨난 밀교(密敎)가 금강승이다.

23) 밀교경전인 대비로차나성불신변가지경(一名 大日經)에 있는 분류

각한다.

모든 인류는 이제 1, 2개년 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려 인류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때인데 기계문명과 산업문화가 극도로 발달된 다음에는 정신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그런 시공의 틈을 타서 휴거(休擧)라는 괴상하고 유치한 미신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올바른 사고의 올바른 종교의 올바른 신앙이 가장 올바르게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 전체에게 소용되는 정신세계 방향설정의 지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맑은 마음(淸淨心)

깨끗한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청정심이라고 해도 좋다. 온갖 탐심과 욕심과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가시어져 가을 물처럼 맑은 글자 그대로 추수정신(秋水精神)의 담연(湛然)한 모습 그것이다.

오폐수(汚廢水)의 온갖 지저분한 찌꺼기가 가시어 금강산 옥류동(玉流洞)의 맑은 물처럼 벽옥과 같고 백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조선의 백지 한 장 그것이 곧 맑은 마음 조선의 마음이며 대순사상 안심의 바탕마음이랄 수 있다.

(2) 바른 마음(正直心)

바른 마음이라고 하니 오늘의 한국에서는 찾아보기도 들어보기도 어려운 말인 것 같다. 빼튼 것, 굽은 것이 주인이 되고 바르고 곧은 것은 천한 것이 되어 뒤바뀌어진 오늘의 세상에서 사되지(邪) 않고 왜곡(歪曲)되지 않은 바른 마음의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이 오늘에 살아나야 하고 오늘의 주인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정치가 바르게 되고 경제가 바르게 되고 문화가 바르게 될 것이다. 종교계야 더 말할 것도 없다.

(3) 사랑의 마음(慈愛心)

요즈음 흔해빠진 남녀간의 사랑도 나무라기만 할 수 없이 좋은 일이라고

해뒤야 하겠지만 신명이 안에 깃들인 우리 인간에겐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다.

옛날 희랍사람들도 남녀간의 저차원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고차원적 정신의 소산인 형이상적 사랑은 아카페라고 구별해서 사용하였다. 것처럼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은 사랑(愛)도 소용되지만 자애로운 사랑(慈)이 바로 그것이다.

나라에는 충성(忠)하고 어버이에게는 효도(孝)하고 부부간에 사랑(愛)하고 이웃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는 사랑(慈)하는 마음이 종교인의 사랑이며 국민 모두의 사랑이어야 한다.

온세계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의 인간들이 사는 세계 또 그런 국민들이 사는 나라들 사이에는 전쟁이니 내란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종교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쁨과 행복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랑의 표현방법으로 대순사상의 해원상생(解冤相生)이란 의미깊고 파격적인 사랑의 실천방법이 설정된 것은 실로 국가전체, 사회전체, 나아가서는 세계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 아닌가.

(4) 화합하는 마음(和合心)

화합하는 마음 남과 화동하는 마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 사는 것을 피하고 집단사회를 구성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혼자의 생각, 혼자의 행동으로는 생활할 수 없으니 개인주의 이기주의 같은 것을 유지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화합심 화합단체의 이단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합의 정신을 맨 먼저 우주천지의 음양합덕에서 보는 것이니 화합의 정신이 없었으면 인류사회는 존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취락(聚落)을 이루고 국가 사회를 이루는 것이 화합정신이니 이 사상이 하루라도 없으면 인류사회는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남북분단 반세기를 지내오는 우리 한민족은
오늘의 세계인들 앞에 얼굴을 들 형편이 못되는 자격미달의 민족이 되어 있
다.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역사를 끝내지 않으면 5천년 문화민족이란 말을
다시 해볼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여기에 남과 북의 모든 인민이 대오각성 민족화동, 국토통일로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화합의 마음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남북 7천만의 마음이
되어야 하며 60억 지구인간 전체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순 신조의 안심을 완성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민족과 인류를 구
하는 최고 최대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넉넉히 말할 수 있다.

이 안심을 가르치는 중요한 문헌으로서 동학을 창시한 수운의 용담유사
(龍潭遺詞) 가운데 있는 ‘안심가(安心歌)를 소개하는 바 안심을 고조한 선철
(先哲)의 목소리에 공감(共感)을 얻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저 생령 초목 군생 / 사생재천(死生在天) 아닐런가 / 하물며 만
물지간 / 유인이 최령(惟人最靈)일네.²⁴⁾

여기서 먼저 그는 안심의 기초가 하늘의 명을 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기 때문에 온갖 고초가 있어도 안빈낙도(安貧樂道)로 살 수 있다고 가르치
고 있다.

자아시(自兒時) 지난 일을 / 역력히 헤어보니 / 첩첩이 험한 일을 / 당
코나니 고생일네 / …공부자(孔夫子)하신 말씀 / 안빈낙도(安貧樂道) 내
아닌가 / 우리라 무슨 팔자 / 고진감래(苦盡甘來) 없을소냐 / 흥진비래
(興盡悲來) 무섭더라 / 한탄말고 지내보세.²⁵⁾

이 중간에 하늘님의 소명(召命)으로 백지에 물형부(物形符)를 받는 대목이
있지마는 생략한다. 다만 그 물형부를 수백장 그려서 소지(燒祇)하여 음복
(飲福)하니 몸이 굽어지고 용모가 희어져서 선풍도골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같이 읊고 있다.

24) 東經大全의 부록인 용담유사 中 안심가

25) 동 동가사중 1부

선풍도골(仙風道骨) 내 아닌가 / 좋을시고 좋을시고 / 이내 신명 좋을시
고 불로불사(不老不死) 하단말가.²⁶⁾

그러나 이것을 보고 비방하고 음해하는 인간들이 있어 서학(西學)한다고
말을 하는 일 조차 있지마는 ‘거룩한 내집 부녀 / 이글 보고 안심하소’하고
안심시키는 안위(安慰)의 사실이 계속된다.

다음에 왜(倭)에 짓밟힌 나라의 운수도 하늘님의 조화로 물리쳐서 수운
자신에게의 비방도 물러갈 것이니 가족들에게 안심하라고 읊는다.

애달프다 저 인물이 / 뉘게 대해 음해하노 / 요약한 저인물이 뉘게 대해
저말하노 / 하늘님이 내몸 내셔 / 아국운수 보전하네 / 그말 저말 듣지
말고 / 거룩한 내집부녀 근심말고 안심하소.²⁷⁾

그 안심 속에 춘삼월 호시절되어 태평가를 부르자고 하리만큼 역경 속에
서도 가족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안심에 이를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을 논의했는 바 이것은 개인의
종교생활 뿐 아니라, 세계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세계
전인민의 안심, 그 안심 속에서의 생활 영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대순의 종지와 신조는 한 종교단체의 교의일 뿐 아니라 21세기
의 세계를 구제할 청사진이라고 할 것이다.

Ⅲ. 안신론(安身論)

거듭 하는 말이지만 본고는 심·신을 아예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 견지에
서 논조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안신(安身)에 대한 논의도 안심과 별다른 것
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통일적 관념이 아닌 분별적 관념으로 나누면 몸은
몸, 마음은 마음이다. 손가락 다르고 발가락 다루듯 구별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곧 무극(無極)이 태극과 같으면서 그 작용에 구별되듯 또 양의(兩
儀)로 나누면 음과 양이지만 그 음양이 곧 하나의 태극이라는 이론과 같은

26) 동서 동가사

27) 동서 동가사

것이다. 그래서 대순의 신조에도 안심과 안신을 갈라서 설정한 것이니 우리는 1개1합(一開一闔)과 내외표리(內外表裏)가 표상(表象)은 달라도 본질적 본체는 마찬가지로인 것과 같은 이론이 되는 것이다.

1. 신체(身體)의 가치성

우수한 표의문자인 한자는 참으로 동양적 문화 처음이요 끝이 되는 글자니 몸을 나타내는 ‘몸체 字’를 봐도 그렇다. 조금 정밀한 사전(字典)에는 다 나와 있지만 몸의 개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글자는 身자다.(사람이 서있는 모양의 상형 몸체자의 약자(略字)로서 体(사람의 근본이란 뜻)를 쓰고 있는데 몸체자가 몇가지 있으니 體(살아있는 몸) 體(죽은 몸) 또 몸 軀자가 있으며 (몸을 4체로 구역화한 것) 體의 뜻을 가진 躬(궁)자 등도 있다.

身과 體의 개념적 차이는 身은 ‘耳目鼻口百體 共爲一身’(귀·눈·코·입과 백체가 모두 한 몸)²⁸⁾이라는 것이고 體는 ‘骨肉毛血表裏大小相次?’(뼈·살·피·겉과 속·크고 적은 것이 차례대로 있는 형상)²⁹⁾라고 하고 있다. 흔히 쓰고 있는 육체(肉體)란 말은 정신(精神)과 대비(對比)할 때 자주 쓰인다.

말을 바꾸어서 안신(安身)이란 용어는 다른 종교에는 별로 쓰이지 않는 대순의 특수한 교의니 이 신조를 설정한 도조 정산(鼎山)의 위대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안신이란 속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이 역경 기사니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精義入神 以致用也. 利用安身 以崇德也. 過此以往 未之或知也.(도리가 정밀하게 되어 정수(精粹=神)의 경(境)에 들면 쓰임이 된다. 그 쓰임(用)을 더하여(利用) 신체를 평안(※편안이 아님)케 함은 그로써 덕(德)을 숭앙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지나쳐 보내기도 하고 더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느니라)³⁰⁾

이것은 음양의 도리를 정통하면 안신(安身) 곧 몸을 평안하게 하는데 이

28) 詳解漢和大辭典 身자目 일본 富山房

29) 동서 體자目

30) 주역 기사 上 5장

용(利用 : 用함에 利로운 것)된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그것은 곧 숭덕(崇德) 하는 일이란 것이다.

말하자면 하늘의 도(道)를 받은 성(性)은 마음을 닦는 것에서 오고 그 과정에서 몸의 평안도 있으며 또 그 몸의 평안이 도덕을 숭상하는 것도 된다고 해서 몸이 마음의 하위(下位)에 속하는 것이 나타난다.

모든 종교 및 정신문화에서 신체를 하시(下視)하고 마음에만 역점(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정신계 문화가 지니는 어쩔수 없는 속성이기는 하다.

유교에서도 충효를 위한 길에서나 의리(義理)를 위한 명분(名分)으로서 목숨은 흥모(鴻毛)보다 가벼운 것으로 신체경시(輕視)를 가르쳤다. 그래서 근일 TV의 연속극에서도 조선조의 단종(端宗)을 퇴위시킨 세조(世祖)의 왕위 때문에 생육신(生六臣) 사육신(死六臣)의 연극이 시청자의 희비를 교착(交錯)케 하는 것을 본다.

외래종교인 기독교의 카톨릭의 순교자 또한 그러하여 성자(聖者)와 복자(福者)들을 배출하였다.

성서의 한구절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³¹⁾

한 말도 있고 또 본질적으로 신체는 무가치한 것으로 보아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³²⁾

고 하여 신체나 현실의 영광이 헛것임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신체의 목숨이 중요한 것을 가르친 것도 있으니

가령 온세계를 준다고 하여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³³⁾

한 것인데 그렇다고 몸을 평안케 하라는 적극적인 언사는 아닌 것이다.

31) 요한복음 15:13

32) 베드로의 편지 상 1:24

33) 마태복음 16:26

그것은 유교의 경우에도 위에서 의(義)를 위해 흥모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은 인의의 의리를 고조하기 때문인 것이지 신체를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도로 소중하게 간수하는 사상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것이 효(孝)의 사상에 입각해 있는 것이 독특한 것이니 효경(孝經)에 가르친 그대로가 일상생활에서의 규범이요 준칙이 되었던 것이다.

身體髮膚 受之父母…不敢毀傷(신체의 머리카락이나 살갗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허물고 상하게 할 수 없다.)³⁴⁾

이러한 교훈 때문에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머리카락에 칼질하는 것은 고사하고 손톱 한 개 깎아서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정도였다.

그런 측면도 따져보면 큰 뜻에 입각하고 효사상으로 이루어져쓰니 부모의 중병에 몸의 살을 끊어 복용케 한 이야기는 고을마다 몇 건씩 있었다.

내세에 대한 일을 추궁하지 않는 유교적 태도는 벌족(閼族)의 변창과 입신출세, 그리고 만세에 전지성명(傳之姓名)하는 것을 삶의 의의로 하는 현실에 입각한 종교사상이었기에 따져보면 안신(安身)이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인의(仁義)의 명분 아래 생명은 흥모(鴻毛)와 같다는 양면적 인생관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은 우선 보기에 극도의 현실부정 육체무시의 태도로 나타난다.

승려의 생활을 두타행(頭陀行)³⁵⁾을 위주로 하는 걸식(乞食)을 생활화해기 때문에 걸사(乞士)라고 번역하는 비슈(必窶 : 파리어로는 bhiku(比丘))가 되어 일생을 독신으로 생활하며 분소의(糞掃衣)를 입고 7가식(七家食 : 일곱집에 빌어 얻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한 것이다.

나중에 석가모니를 통해서 비고비락(非苦非樂)의 중도(中道)생활을 표방하지만 고행(苦行)의 수도승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생활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서 선종(禪宗)이 성해지면서의 한 예를 들면 이런 일화가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34) 孝經 開宗明義

35) 두타행 : 남에게 물질을 빌어 얻는 수행

文武之道 未曾留意時 謂之酒囊飯袋(문(文)이나 무(武)의 길에 일찍부터 뜻을 두지 않았을 때 그것을 술주머니와 밥자루라고 한다)³⁶⁾

다시 말하면 문무의 도를 생각지 못하고 사는 인간을 술이나 마시고 밥만 먹는 술주머니 밥자루라고 하는 이야기여서 그 후대인이 도를 닦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반대자(飯袋子)라고 타매한 기록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대비한 몸을 일러서 밥통이니 밥자루니해서 무시하여 말하는 것도 본다. 또 몸을 마음이 입고 있는 하나의 옷이라고도 하고 있다. 그것은 불교사상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땅과 물·불·바람(地水火風)로 된 것이고 인간이란 것도 신체는 지수화풍의 4대(四大 : 4가지 원소)가 가합(假合)한 것으로 한 7,80년 입고 있다가 벗어 놓고 떠나는 입성이 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성성불(見性成佛 : 자기의 성품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것), 즉심시불(即心是佛 : 곧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말하여 신체 곧 색신(色身)경시의 경향은 상당히 심해진다.

그러나 오직 소승(小乘)·대승(大乘)을 거친 다음 생겨난 금강승(金剛乘 = Vajra yana)에서는 몸에 대한 차원을 높였으니 그 캐츠프레즈를 ‘곧 이 몸으로 부처가 된다(即身成佛)³⁷⁾고 했다.

몸없는 마음의 소재가 어딘가.(하기는 몸이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또 몸 전체에 있는지, 아니면 몸 밖에 있는지) 그 알 수 없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똥오줌 누는 이몸 이 밥자루 그대로가 부처가 된다는 실로 감격적인 성불관을 수립한 것이다.

서구의 로마인들이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한 말이 있다. 밥자루, 고름주머니인 이 몸 이대로 부처가 되고 신명이 되고 우주 전체가 되고 하는 지극히 큰 신체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면 대순사상의 안심론이 안심론에 못지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나아가서 몸이 곧 마음이며 마음이 곧 몸이라는 심신불이의 뜻도 요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대순사상에서의 몸에 대한 일을 요람에서 요약해 본다.

36) 天中記 第三十九

37) 금강승 밀교의 교의는 한 교의와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일본 眞言宗(밀교)의 종지는 ‘現世利益’으로 되어있다.

-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기관
- 법례(法禮)와 도리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안신론의 버리가 이것인데 몸의 본질과 함께 행동지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우리는 마음과 비교한 몸이 지닌 몸의 가치성을 생각하였지만 너무 정신일변도로 몸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관념도 부당하고 또 마음 같은 것은 별 것 아닌 대뇌의 작용을 미화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무시하는 관념도 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육체를 멸시하는 눈으로만 보는 눈에는 인간이 한 마리 강아지나 같은 생물로만 보아질 위험이 있으며 과학자들의 분석과 같은 인간이 지닌 칼슘, 인(磷), 염분 등 인체의 원료를 계산한 2\$ 얼마의 값어치 밖에 찾아낼 수 없는 물질의 결합으로만 간주해질 우려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신체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있기에 대우주에 대비하여 소우주라고도 부를 수 있고 살아있는神明(神明), 살아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이 곧 한울님 [人乃天]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담아두는 용기(容器)가 몸이니 종교니 철학이니 또는 문화 예술 과학이고 산업이고 모두 몸이라는 그릇이 아니면 담아 둘 곳은 없다. 더구나 전쟁 때는 물론 평화체제 아래서의 체육이나 무용 같은 것은 바로 이 신체라는 기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직접적 관계에 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 마음의 선(善)을 표현할 수 있는 기계, 인류를 위한 아름다움, 미술이나 음악을 이 연장(道具)이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신체를 확대하던 옛날 방식의 고행으로 하는 수도가 불합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백년미만뿐인 사용연한의 인간이 가진 신체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 꼭 있어야 한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아울러 필요한 것이니 영양을 연구하고 몸의 조련(操鍊 : 곧 체조) 운동을 개발하는 작업이 중요한 인간의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 기구를 위한 의학이 있고 약학이 있고 식품학 영양학이 있는

것은 실로 인간만이 지닌 예지(叡智)의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요람에서 지적하듯이 허영에 빠져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법례(法禮)에 맞는 행동, 의리(義理 : 뜻과 이치)에 맞는 행동으로 전인적(全人的) 인간의 신체가 되기를 갈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안신의 방법

안신 곧 신체를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개발되어 있다.

먼저 의·식·주(衣食住)의 생활여건에서부터 건강을 위한 약품과 식품, 질병치료를 위한 의학예방법, 체육경기, 양생법, 호신술, 차력법(借力法), 기공(氣功), 연단술(煉丹術), 안마술(按摩術), 기합술등 뿐만 아니라 요즈음 유행하는 레저니 관광이니 한 것도 모두 안신의 한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야의 많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만 안신의 원리 원칙적인 면을 논의할 것인 바 그것이 대순사상과의 연관성을 지닐 수 있는 실리적인 것을 위주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사물을 2원화(二元化)하고 또 2분법(二分法)으로 간주하는 서구인들과는 다르게 동양은 늘 1원화하여 거기서 분화(分化)한 것도 따지면 근본에 들어가는 것 [元始返本] 으로 사고하는 것이므로 본론에서도 또한 심신불이(心身不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1) 심신의 조율(調律)

심신불이의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은 누구든지 시인할 것이다.

TV에서 중국의 기공체조를 하는 시민들을 방영하면서 하는 아나운서의 말이 ‘그들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하여 아주 무슨 새로운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2분론(二分論)적인 서양적 교육을 받은 오늘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하는 말하기에 그것이 외려 신기하게 여겨지는 까닭이기는 해도 동양사상은 본래부터 심신불이의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몸과 마음을 연관시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심신을 조율(調律) 조정(調整)하는 것이 건강의 시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건강(健康)이란 문자를 우리는 일본정치하의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웠으니 중국과 한국의 한문 문자는 강건(康健)이었다. 평강(平康)이니 강녕(康寧)이니 하는 정신적 평안(平安)과 강건(強健)이니 건기(健氣)니 하는 신체적 발달의 뜻을 보태어 강건(康健)이라고 했던 것이 외래어 헬스(health)를 건강(健康)으로 번역한 일인들의 말을 받아서 오늘은 육체만의 평안을 앞세운 건강이란 말이 아주 인사처럼 되어 있다.

대학에 이런 말이 있다.

所謂 修身在正其心者… 此謂 修身在正其心：右傳之七章 釋正心修身(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고 함은… 이것을 몸을 닦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전(傳)의 7장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몸을 닦는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³⁸⁾

지면 관계로 구체적인 것은 모두 생략하고 오직 정심(正心)과 수신(修身)이라는 말을 부각(浮刻)시키기 위했기 때문에 이 말만을 발췌한 것이다.

그리고 맹자에는 수신(修身)과 함께 양심(養心)을 말해 있으니 수신의 수(修)와 양심의 양(養)을 합하면 수양(修養)이란 속어가 성립되는 것이니 우리가 사용하는 수양이란 몸과 마음을 닦고 기른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적기(摘記)해 둔다.

君子之守 修其身而天下平… 養心莫善於寡慾(군자의 지킴 곧 그 몸을 닦음으로 천하가 평안하다…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³⁹⁾

이로써 맹자는 수신(修身)의 이상과 함께 양심(養心)의 방법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심·신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조율(調律) 조화(調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이것이 안신(安身)을 위한 확고한 기초공사라 할 것이다.

38) 대학 傳之七章 釋正心修身

39) 맹자 盡心章句 下

(2) 신체관리

신체를 강건(強健)하고 평안하게 유지하는데는 온갖 의학적 기구와 약품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원칙적인 양생론이 소요될 뿐이다. 영양을 갖춘 식이(食餌)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구며 약물(藥物)이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동양의학에서의 이론인 음양5행설로서 안신의 방법을 구해 보려한다.

음양5행과 신체의 장부(臟腑)와 5관(五官)의 관련을 간단히 도표로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인간의 신체와 관계없는 추상적 현실적인 연관도 파다(頗多)하지만 신체관계의 부분만 취록(取錄)한다.

五行	木	火	土	金	水
五臟	肝	心	脾·胃	肺	腎
五官	目	口	膚	鼻	耳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季	春	夏	季末	秋	冬

40)

인체(人體)가 소우주니까 이런 음양5행의 영향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 연장한다고 생각하면 음양5행과의 조절 섭리(攝理 : 이치에 맞게 섭생하는 것)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례를 들면 봄철에 갑자기 얼굴이 청녹색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肝)에 탈이 생긴 사람이다. 목속간(目屬肝) 곧 눈이 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눈이 빛을 잃고 심지어는 푸른 기운이 돈다. 이럴 때는 수생목(水生木)의 원리로 감미(甘味)있는 수분(水分)을 많이 복용시키고 보(補)의 의미에서 푸른 색 봄나물을즙(汁)을 내어 먹어야 한다. 또 병증이 심하면 금극목(金剋木)의 원리로 쓴(辛) 맛의 식이(食餌)와 약이(藥餌)를 섭취케해서 목성(木性)을 잡아야 한다.

40) 本 論叢 제4집 p.264 拙稿 “解冤相生の 多元的 考察”에 상세한 一覽表가 있음

서양 의학에는 감기에 아스피린, 소화불량에 지아스타제라는 기계적 공식이 있지만 그보다 이러한 음양5행의 상생·상극·상보의 방법이 먼저 앞서는 것이 동양의학이다.

몸에 화기(火氣)가 많아 심장의 활동이 강렬한 사람은 꿈에 불을 자주 보고 수기(水氣)가 많은 사람은 물이 흘러 가는 꿈, 물에 목욕하는 꿈을 자주 꾸게 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치에 속한다.

얼굴이 불광한 남방화(南方火)에 속한 사람이 몸을 편하게 하려면 수(水)의 방위인 북쪽으로 가야하고 몸에 수기(水氣)가 많은 사람은 건조한 토지의 중앙이 좋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또 만일 서방금(西方金)인 폐(肺)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으면 남방화(南方火)의 곳으로 가서 금기(金氣)를 쳐주는 치료법을 써야한다.

식이요법(食餌療法)도 현대 영양학적인데 입각한 것이 손쉬운, 또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음양5행의 5색(色) 5미(味)등을 참고해서 섭리, 양생에 보탬이 과하게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대의학에 정신신체의학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나면서부터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라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이 작용은 우리의 신체내부의 체온이나 또 화학적 성분의 작용이 언제든지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도록 조절해 주는 동시에 그 작용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해서 '자기정상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 거의 모두가 그 작용에 고장을 일으켜 그 작용이 손상을 입어 정상화하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인간들이라 한다.

그러니 그 고장난 호메오스타시스의 작용을 교정 회복하여 인간 내부의 환경상황을 안전하게, 안정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래 호메오스타시스의 작용은 마음과 몸 곧 심신의 양면에 걸쳐 작용하는 것인데 그 심신의 연계상태가 고장이 난 것이 오늘의 인간들이다.

오늘의 초심리학계나 심령학계(心靈學界)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위에서 소개한 정신신체의학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

이 완전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바로 잡자는데 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곧 대순의 교의가 말하는 안심·안신의 영역인 것이니 심리적 영역과 생리적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정시키고 또 결함이 있으면 함께 치유하여 함께 안정시켜야 한다. 안심·안신의 신조가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또한 위에서 말한 음양 5행의 상생 상극의 원칙을 의학적인 면에서 본 것인 바 동양의 사교가 현대의 정신신체 의학의 기초를 놓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거기에 종교적 신앙과 수도방법이 가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전인(全人)으로의 완성을 기하는 차원 높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3) 수신(修身)의 방법

위의 안신의 원칙적인 문제를 논의했지만 다음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 한다.

먼저 심신통일의 방법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적용 수신(修身)하는 것을 말하려 한다.

불교의 율종(律宗)같은 곳에서는 성불(成佛)의 정의를 위의성불(威儀成佛)이라고 규정하리만큼 성불의 정신적인 완성보다도 육체적 자세라든지 행주좌와(行住坐臥)의 행동거지(擧止) 또는 복색(服色)같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부터를 불교의 완성인 성불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유교, 그것도 성리학을 위주하던 시대에도, 도의 내용보다도 우선 어릴 때부터 행동거지(擧止) 예의범절(凡節)같은 육체적 현실적인 행동을 정신적 윤리·도덕이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년기부터 학습시켰었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양반전'이란 소설에도 나와 있지마는 양반은 혼자 있어도 의관(衣冠)을 갖추고 음식은 조용하게 먹어야 하고 언어와 행동에 조금하지 않아서 소낙비가 와도 달려가는 일 없이 그냥 예사로 해야 하고 아침에 일찍 기침(起寢)하고 가간사(家看事)를 살피는 것 그것이 모두 '수신제가치국평천하'⁴¹⁾의 기본이 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유럽 제국의 해적이나 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지방 부족에 따른 전쟁의 칼싸움이나 하고 할 때 문화선진국인 한국이 하던 개인적 또 가정적 사회적 행동의 규범이었으니 그보다 더한 안신의 방법이 없던 차원 높은 문화민족이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선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손으로 문질러 눈곱과 떼가 떨어지게 하고 두손을 비비는 운동, 발바닥을 문지르는 운동, 상체를 전후 좌우로 흔들고 그제야 밖에 나가 소지(掃地)를 하면 전신운동이 모두 갖추어 지는 훌륭한 양생법(養生法)이 있었다. 또 한가지 이를 아래위로 딱딱 맞추기를 여러 번하면 치근(齒根)이 튼튼해진다고도 하였다.

그리고는 소세(梳洗) 양치(養齒)를 한 후 경서(經書)를 내어놓고 큰소리로 읽으면 음성조율도 되고 맹자(孟子)가 말한 호연지기(浩然之氣)도 기르게 되었으니 이 모두 안신을 위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오늘에도 가정에 헬스 곧 건강기구가 있어 몸을 위한 운동을 하든지 조기 등산이나 산보 또는 조깅을 하는 것, 또 여성들의 체중감소를 위한 다이어트 운동, 일반적인 보건운동이 있는데 여기에도 욕심을 부리자면 정신적 의미를 부가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 함께 신체양생을 위한 단전호흡법 같은 것은 야외에 나가서 뛰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몸의 건강과 정신의 강건을 조는 것이라고 본다.

호흡법이란 곧 복식(腹式) 호흡인데 흉부(胸部) 폐장(肺臟)에서 호(呼)하고 흡(吸)하는 것만이 아닌 맥혈(脈穴)의 기해(氣海) 단전(丹田)부위에 공기를 넣어서 연단(煉丹)하는 선도(仙道)의 호흡방법이다.

양 비공(鼻孔)으로 급히 들어마신 공기를 하복부 단전(丹田) 부위에 가득 하게 한다음 내어 뱉는 공기는 입술을 약간만 열고 누에가 명주실을 내어 놓듯 가느다랗게 아껴서 토출(吐出)한다.(눈은 반눈을 감는다)

이 호흡법은 불교가 중국 양(梁)나라 때에 들어와서 선종(禪宗) 초조(初祖) 다르마(達摩)⁴²⁾에 의해서 선나(禪那=cana(巴)dhyana(梵))에 접목된 것이 오늘

41) 大學 傳之一章

42) 다르마 : 중국 양(梁)나라 때 중국 少林寺에서 九年을 한자리에 앉아 선공부를 하여 대각후 불교 선종(禪宗)의 初祖가 되었다.

까지 전해져 있으며 또 나아가서 기합술(氣合術)이니 최면술(催眠術)이니하는 심기통일(心氣統一)의 준비과정으로 하는 호흡법으로서도 통용되고 있다.

선(禪)과 함께 널리 퍼진 유가(瑜伽=yoga)가 있어서 구미(歐美)제국에도 요가체조로 보급되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요가는 심(心) 요가가 있고 신(身)요가가 있는데 형이하적인 경향을 띤 서구사람에게는 신요가가, 형상(形上)적인 성격의 동양에는 심요가가 전파되었으니 불교에는 유가종(瑜伽宗)까지 생겨났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요가란 것도 심신을 함께 단련하는 한 방법이었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심신불이적 성격의 사상(事象)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좌선법(坐禪法)이나 연단법(煉丹法)에는 앉는 방식까지 설정해 있으니 그 대표가 되는 것이 참선의 가부좌(跏趺坐)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꿇좌(跪坐)가 아닌 평좌(平坐)다. 연단수련의 단전호흡의 꿇좌(跪坐)나 참선의 가부좌에도 결가부좌(結跏趺坐)는 단시간에는 몰라도 장시간에는 도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단가부좌(單跏趺坐) 곧 평좌(平坐)가 편한데 이것도 왼발을 오른 넓적다리에 올리면 향마좌(降魔坐), 그 반대로 오른 발을 올리면 길상좌(吉祥坐)라고 해서 왼발을 먼저 올리고 교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편한 대로 앉는 것이 제일 좋다. 노인은 누워서 해도 된다)

그러나 안심·안신의 연단(鍊鍛)이란 행·주·좌·와(行住坐臥) 모두에 적용시켜서 생활화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중국식 기공(氣功)의 원리며 연단(煉丹)의 방법이며 참선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기운 풀어놓고 함부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하는 현대인이 안심안신의 수신 가운데 행동거지가 정신통일, 단전호흡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고 하면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호메오스타시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1석 2조가 될 것이다.

(4) 안신을 위한 일반적 양생(養生)

위에서 양생에 대한 원칙과 방법을 기술했지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것을 몇가지 찾아서 본론의 주제인 안신(安身)을 위한 목적 추구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한다.

그런데 먼저 어떤 철인(哲人)이 한 말을 하나 소개한다.

‘인간은 제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망하기 마련이다.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으로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 때문에 술을 좋아하든지 놀음을 좋아하면 또 그것 때문에 망하든지 죽든지 한다. 말하자면 꼭 제가 망할 것을 골라 좋아하게 마련인 셈이다’한 것인데 참으로 인생살이의 정곡(正鵠)을 찌르는 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논하고 싶은 것이 탐심과 욕심을 내려 놓으라는 것이다. 각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도 하고 또 어떤 종교에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도 또 어떤 종교에는 마음을 내려 놓으라’고도 하는 것이 이것이다.

마음속에 권력이 이글이글 불타고 황금이 딸그닥거리고 하는데 무슨 운동이니 체조니 한다고 해서 몸이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심(下心), 허심(虛心), 청정심(淸淨心)이 되어 있지 않고는 헬스고 수영이고 다이어트고 뭐고 몸에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自明)하다 그것은 온 몸동이 속에 욕망의 탐심이 꼭차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생의 수신(修身) 제1과는 방하(放下) 하심(下心)하는 것, 먼저 속을 비우는 것이 소용되니 그렇게 해야만 심호흡을 해서 산소를 흡취할 수 있고 그 후에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잘 섭취될 것이다.

다음 현대어로는 운동(運動)이라고 하고 옛말로는 운력(運力)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려 한다.

과거에는 운기(運氣 또는 運命, 運數)는 기(氣)나 명수(命數)를 운용(運用)하는 말로 운력(運力)이란 말이었는데 불가(佛家)에서는 작업(作業) 활동하는 것을 말했다.

오늘에는 운동(運動)과 노동(勞動)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노동이 생활의 영위(營爲)를 위한 활동인 반면 운동은 다만 신체의 건강만을 위한 것에 국한 되고 있다. 말하자면 육체노동의 운력(運力)이 부족한 정신노동이나 서역(書役) 노동하는 사람 또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를 내릴 수는 없으니 그것이 모두다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운력의 한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의 운동이라는 건 오락을 겸한 것, 그리고 반드시 승부가 있어서 투기 도박성까지의 성격이 있지마는 이런 것은 안신의 수신(修身)을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광의적(廣義的) 의미에서의 운력, 운동은 남을 위한 곧 사회전반을 위한 근로봉사가 그것이니 팔을 내어졌고 다리를 움직여 달리는 시간 대신, 말하자면 하나의 육체를 위한 운력보다도 남을 위한 봉사의 운력, 국가 사회를 위한 사회봉사 그것도 자원봉사인 볼런티어(volunteer)가 얼마나 훌륭한 안신의 방법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안신론에서 한가지 세계적인,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큰 명제가 있으니 세계인의 건강과 안신을 위해서 더욱이 우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이 청정해야 되겠다는 그것이다.

세계인의 정신적 군사적 평화와 안정에 앞서 자연환경이 청정해야겠다는 것이다. 대기와 하해(河海)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얇어지며 1산화, 2산화탄소의 증대로 세계인 모두가 현실적 육체적으로 불건강하다면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도 불건강 불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폐수, 지구의 수량(水量)조차가 부족해진다 는 경고가 있는 우리의 지구환경은 연부년(年復年)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의 나 개인의 안신은 물론, 지구인 전체의 건강으로 오는 안신을 위해 종교, 도덕적인 정신적 면에서의 노력과 함께 자연환경의 청정화 운동이 세계적으로 더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니 세계인 전체의 안신이 없어서는 지구 전체의 건전한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 하나인 우리의 건강을 보살피듯이 단 하나뿐인 지구의 건강을 보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인연 관계가 있다.

끝으로 이것이 만인 필수인 공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수된 양생의 마무리 참고로 한말 보태어 둔다.

그것은 독일의 의학대가가 거금 70년대전에 발표했던 '불규칙주의'의 양생법이다.

그의 이론은 인간을 어떤 규격이나 범주에 묶어 넣어서 생활하게 하는 독일식 규칙주의의 파괴가 본령(本領)이었다.

인류의 역사 수억년에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똑같은 생리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니 몇 시에 일어나며 밥을 하루에 몇차례 먹고 몇시에 자야 하느니 하는 규칙은 본래부터 없다는 것이다.

온갖 금수가 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쉰다고 올빼미, 부엉이, 박쥐들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거니와 그 놈들은 아예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필요에 의해서 첫새벽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9시 10시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하루 세끼 아닌 두끼의 밥을 먹든 또 반대로 넷끼나 다섯끼의 밥을 먹든 그 먹는 본인의 생활 프로그램이나 또 바이오 리듬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좋으면 좋은대로가 본인의 생활습성이 될 것이고 나쁘면 고칠 것 이란다.

서양식 침상이 좋은 사람은 그 침대에서 자면 되고 한국식 온돌이 좋으면 온돌, 또 일본식 다다미라든지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기호물의음식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경우는 술과 담배·커피를 건강비결의 3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싫은 사람의 경우는 안 마시고 안 피우면 그만일 것이다.

술을 많이 마시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각자가 스스로 알아보면 얼마가 자기의 적정량이며 또 그 적정량도 당시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담배도 한가지, 커피도 한가지, 사실 이것들이야말로 배부르기 위해 또는 영양섭취를 위해 섭취(攝受)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멋과 아름다움을 취하는 고차원적인 음식인 것이다.

꼭 영양가치가 있어야 먹고 몸에 이롭다고 해야 먹고 하는 기계같은 생활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강요하는 현대과학은 인간이 이용하는 학문의

선을 넘어서 가위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듯 군림하고 있는 듯한 현상이어서 주객전도(主客顛倒) 본말차질(本末差跌)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인간을 심신일여의 견지에서 신인(神人)다운 존재로 보지않고 얼마든지 수선개조해서 쓸 수 있는 기구로 또 잘 먹여주면 잘 크고 못 먹이면 못 크는 애완동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중의 최상급이라고 할만하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현대의 의학이나 약품학, 영양학 또 위생학 같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문에 지극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다만 인간의 심·신은 그런 것들을 어거(御擧)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서양의 종교는 잘 구비된 여행가방과 같아서 어디에 무엇을 넣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지만 큰가방에 넣을 물건이 적을 때나 작은 가방에 물건이 넘칠 때는 물건의 증감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그런데 동양의 종교는 보자기와 같아서 펴면 넓고 접으면 주머니에도 들어가며 색깔도 온갖 것이 있는데 큰 것, 적은 것, 모난 것, 둥근 것 무엇이든지 다 쌀 수 있다고 한 말이 있다. 부상당한 사람을 위해선 찢어서 붓대로도 쓸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강도는 남의 목을 매어 목숨을 뺏을 수도 있다. 그러니 동양과 서양은 근본적으로 사고 방식이 틀리는 것이다.'⁴³⁾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이 동양인의 안심과 안신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IV. 신세기에 소요되는 안심·안신

사실 본고의 제4장을 심신불이론으로 설정하여 약간의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주어진 지면관계로 생략하고 아무리 하는 몇마디 말을 붙인다.

43) 宗教と現代に問う 제5권 自己變革의 勇氣 佐伯眞光 毎日新聞社

1. 신세기를 맞는 한국인의 위치에서

안심과 안신이 인간생활(도인은 물론이며)에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것은 누누히 언급한 것이지만 이것을 오늘 21 신세기를 맞는 한국인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이 귀중한 정신을 섭수(攝受)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인 곧 우리 국민은 과거 GNP 1만 1천달러를 구가하던 때부터 오늘 6천8백달러의 IMF체제에 허우적거리는 시기에 걸쳐, 또 그 기간 이상, 또 다가오는 미래에 걸쳐 마음의 안정을 가진 국민이었던가. 또 오늘과 내일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인가 자문자답해 보면 글자 그대로 불확실성의 오리무중 같은 상태다.

국가 사회가 안정되자면 국민의 개인개인이 먼저 안정해야 한다. 그렇게 따져보면 나 한 개인의 안정 그것이 한데모여 국가 사회의 안정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반대인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에 대한 추궁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문제도 있고 경제문제도 또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내탓이요 하는 말과 네탓이요 하는 말이 함께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나아가서는 IMF관계라 할는지 몰라도 IMF전에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였고 또 IMF를 극복한 후에도 반드시 불안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심·신의 안정없이 불나방이처럼 정치에 덩벼들고 실업한다고 달겨들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간 빚나가서 실직자가 되어 노숙을 하다가 공공사업에 나가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어디메 남의 집이나 털자고 하고 술마시고 싸움질이나 하는 불안, 불안정한 퇴폐 비관의 가련한 군상들을 보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국가 사회의 현상도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통과 의례로 봐줄 수도 있지만 과거 외적의 침입과 또 이국의 강압적 통치하에 신음하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반성과 회오(悔悟)의 깨달음이 모자라는 민족인 것 같다. 그 일부의 책임은 교육과 종교에도 있는 것이니 이제 이 국민에게 아무리 심한 난관에서도 안심하고 안신하는 신념과 원력(願

力)으로 꾸준히 정진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기에 안심과 안신은 대순사상의 종교적 신앙의 조건(信條)이 되는 동시에 국민들에 널리 파급되어야 할 국민정신 함양의 자량(資糧)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속담에 ‘풍파가 없으면 훌륭한 사공의 기술을 알 수 있을까’한 말이 있듯 우리 한국민 오늘의 난국이 대국민을 육성하는 하나의 수련과정으로 생각하고 배짱을 가지고 날뛰지 않고 대지를 밟고 가는 황소걸음을 배워서 안심의 새날, 안신의 내일을 기다려야 할 것이니 이 논집에서 안심·안신을 논하는 소이(所以)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인의 기본자세로

어느 날의 텔레비전에서 전문에 휩쌓인 유고슬라비아 코소보의 어린 소년의 처절한 소리를 듣고 참으로 세계의 앞날이 막막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와 나는 숨어서 용하게 빠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총에 맞아 죽고 형은 목매달려 죽었고 누나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군인이 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 이웃집 아줌마는 겁탈을 당하고 칼 맞아 죽었어요”

이 아이가 입을 여는 말 마디마디에 죽음(死)의 주검(屍)이야기 밖에는 나오는 말이 없는 그 처참한 것이 인간의 상상 속에 나오는 지옥의 참혹함보다 더한 것 같다. 흔히들 수라장(修羅場)이라고 하는 아수라(阿修羅) 싸움꾼들의 장면도 이렇게 가혹하고 처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때는 NATO(北太平洋조약기구)군의 연합국 비행기가 유고의 동서남북을 재차 폭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계 제1차대전이 세르비아 청년이 쏜 당시의 육혈포(六穴砲)한방으로 일어났던 그 지역에서 또 이러한 대규모의 공습과 살상이 자칫 또 전세계를 전쟁의 와중(渦中)으로 몰아넣는 전제가 되지 않을까 기우(杞憂)아닌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우리 사는 지역인들 오늘의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으니 우선은 마음을 놓고 햇별정책으로 북에서의 폭우(暴雨)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은 운명의 복병은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야망의 눈초리로 노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남의 일 같지 않은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스크에 등장하는데 강대국들은 이것을 경찰하고 해소시키는 명분 아래 교전상태로 몰고 간 시비는 역사에 맡길 것이지만 지상천국 선경세계건설을 최고목표로 하고 있는 대순사상의 견지에서 보면 이 세기와 세계의 불안한 상태로서 일반인에 더한 관심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심·안신의 꼭긴(喫緊)한 중요성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종교의 이상이 무엇인가. 일개인의 구제도 구제지만 집단구제, 대중구제 나아가서는 지구세계 전체의 구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안 불안정한 세기말에서 대순사상이 지닌 사명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증산이 일찍 후천의 개혁사상을 고조하였지만 이 후천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한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용훼(容喙)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후천의 이상만은 세계구제의 대이상이며 그것이 곧 대순사상의 최고목표인 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안심·안신도 이 목표에 대비(對備)하는 종도들의 필수(必須)할 신조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세계전체 지구인의 구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후천개혁의 청사진을 전경에서 찾아본다.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⁴⁴⁾

나는 3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⁴⁵⁾

이러한 아이템을 제시해도 안심 안신하지 못한 군생(群生)은 양위상제의 성지(聖旨)를 듣고도 못 들은체 [聽而不聞] 하고 진멸(殄滅)을 초래하는 죄악만 범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마당에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인간이나 천성(天性)이나 인성(人性)이 아닌 수성(獸性)의 인간들 완인(完人) 전인

44) 전경 공사 1장 3절

45) 동서 공사 1장 2절

(全人)이 못된 심신(心身)의 불구 인간들이 이 지상에 우글거리고 있다. 이때에 후천개벽으로 찾아 올 지상천국 5만년 선경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대순의 도인을 중심으로 전 한국인이 집합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천적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안심, 안신 못하는 지구인에게는 과멸이 있을 뿐이다. 몸과 마음의 안정 속에 지구세계가 안정되어 새로운 천년축전(千年祝典)을 펼쳐야 할 것이니 세계평화로서 다가올 인간세계의 안정과 자유가 안심, 안신이라는 요체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結論)

본고를 마치면서 몇가지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서상(敍上)한 것이 있지 마는 오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관념은 성(性)이 자리해 있었고 심성(心性)이니 심기(心氣) 또는 심정(心情)같은 말은 마음이 지니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또 기운(氣運)이라든지 감정(感情)을 곁들여 사용하다가 중세(中世)로 내려오면서 심(心)이 위격(位格)을 나타내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 내면적 활동인 사고(思考)와 정감(情感) 의지(意志)등의 산지(產地)며 고향이 마음이란 것으로 정착된 것같이 여겨진다.

하기는 이러한 것은 사견(私見)일 뿐이니 여기 대한 고증(考證)과 방증(傍證)이 필요하겠지만 선인들의 발명(發明 : 이론을 밝히는 일)이나 학계(學界)의 논의가 없기에 다만 두서없이 자료만 나열한 것이 못내 아쉽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니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가 그저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그 안심에서 입명(立命)한다는 것 뿐이었지만 대순사상에서는 도인 신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또 거기에 곁들여 현대인의 스포츠나 위생관리에나 마음쓰는 신체의 안정을 또한 신조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실로 정신과 육체, 신명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일원적(一元的)인 대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니 실로 양위상제로 모시는 구천(九天) 옥황(玉皇) 양위상제의 홍덕(鴻德)에 고개 숙여지는 것이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소우주라고 불리우는 인간이 마음 있으므로서 만물

의 영장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음 못지않게 몸 곧 신체의 소중하고 존귀함 또한 지극히 큰 것을 다시 깨닫는다. 우리 모든 사람이 안심 안신에 대한 인식이 다시 더하기만 바라는 바이다.